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 딸기의 수확량은 증대

농진청, 부분 난방기술·새로 개발한 양액 온도조절 기술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딸기를 수경 재배할 때 겨울철 난방비는 줄이고 수량은 높일 수 있는 부분 난방 기술과 새로 개발한 양액(배양액) 온도 조절 기술을 지난 6일 소개했다. 딸기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2,050헥타르로 전체 딸기 재배 면적의 34%에 이른다. 딸기 수경재배 농가는 12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수확하는 속성재배를 하면서 경영비의 8~12%를 난방비로 지출한다. 최근 몇년 간 기후변화로 겨울철 저온인 날이 늘면서 난방비 부담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미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딸기 부분 난방 기술은 난방장치(온수보일러, 히트펌프)를 이용해 23도(°C)의 온수를 만들고 이 온수가 순환하는 배관을 딸기의 생장점이 위치

한 줄기 아래쪽(지제부)에 가까이 붙여 줄기 하부를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다. 딸기의 생장점이 온도에 민감한 생리적 특성을 활용해 생장점 주변 온도만 높게 관리함으로써 온실 전체를 난방하는 기존 방식보다 난방에너지를 아끼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진은 난방 배관으로 들어가는 물 온도를 23도(°C)로 데우고 공간 온도를 5도(°C)로 관리한 결과, 온실 전체를 8도(°C)로 관리하는 기존 방식보다 수량이 25%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히트펌프(공기열원)를 사용하면 난방에너지가 기존보다 24% 줄고 난방비는 57% 절감됐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양액 온도 조절 기술은 부분 난방에 사용한 23도(°C) 온수를 양액 원수(原水)로 사용함으로써 양액을 기존 10~16도(°C)로 공급

하는 방식보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진이 부분 난방에서 난방수로 사용하고 거둬들이는 23도(°C) 온수를 양액 원수로 다시 사용한 결과, 양액 온도를 조절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수량이 81% 늘었다. 이는 양액 온도가 23도(°C)일 때 뿌리부 온도가 상승하고 딸기의 양액 흡수율이 증가하며 적정 배액률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딸기 부분 난방 기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양액 온도 조절 기술은 농가 실증 시험을 앞두고 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영농 현장에 빠르게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충근 시설원예연구소장은 "부분 난방과 양액 온도 조절 기술을 수경재배 딸기 농가에 보급해 난방비는 절감하고 생산성은 높이는 똑똑한 딸기 재배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정부 혁신·정책

투명성·책임성 제고

새만금개발청, 국민신청

실명제 4분기 오늘부터 접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정부 혁신과 정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신청실명제 4분기 접수'를 오늘부터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의 관련자와 추진상황 등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관해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혁신행정담당관) 또는 전자우편(svn17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제한은 없으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이 신청한 과정은 새만금개발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선정된 과정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게시된다.

/유호상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안장옥씨 부자

위급상황 50대 남성 구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상용생산관리부에 근무하는 안장옥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남성의 목숨을 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안장옥씨는 4일 오전 10시 25분께 아들 지호씨의 자택인 익산시 영등동 소재 아파트 내에서 비명을 지르며 승용차를 뛰쳐 나오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안씨 부자는 A씨가 목에 줄을 감고 있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을 감지하고 119신고와 함께 긴급조치에 나섰다.

안씨 부자는 가위를 쥘러 목의 줄을 끊어내고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도 확보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안씨 부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안장옥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꼭 배우라라고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



지난 6일 전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지역통계발전토론회'.

전북·제주 지자체 통계 관심 유도

호남통계청, 전주서 '지역통계발전토론회'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지난 6일 전주 라마다 호텔에서 전북·제주 16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계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방통계청-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지역통계 발전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행사다.

특히, 토론회가 올해는 '기자의

눈으로 본 지역통계 필요성'과 '정책활용사례 소개' 등 지자체의 지역통계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체 통계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방통계청-지방자치단체 지역통계발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호석 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통계체계 개발과 호남청-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통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민 주도 사업으로 공정무역 인식 확산

도, 공정무역위원회 개최

전북도가 지난 6일 2020년 제2차 '전북도 공정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서 개최되는 공정무역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그동안 공정무역사업 추진현황 청취와 함께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품평회가 진행됐다.

현재 도내에는 전북도의 지원으로 2개 단체와 3개 자치단체에서 공정무역 기반조성 및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강의, 컨퍼런스,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공정무역 원료와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공정무역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은 공정무역 원료와 결합 가능한 도내 생산품, 농산물을 조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 공정무역 제품을 개발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시제품에 대한 상품성과 가격, 개선점 등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졌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완성한 후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및 전문가 소그룹 강의 등을 내년에는 조기 개최해 인식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정무역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를 위해 사회적경제 제조 네트워크를 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무역제품의 다양화와 민간 해 내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역농민, 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 많은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김제시 금구서도지구를 방문한 가운데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LX-국민권익위, 김제 금구서도지구 현장방문

모바일 측량시스템 시연 등 프로그램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김제시 금구서도지구를 현장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현황 설명 ▲재조사측량 현장 진행상황 확인 ▲모바일 측량시스템 시연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들의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지적 불부합치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LX와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사업완료로 위해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지적(토지)관련 고충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 되는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현장방문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등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LX 송준상 고객지원처장은 "국민권익위와 함께 고충민원 해결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국민권익위와 2016년부터 지적·측량 분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불합리한 지적 관련 제도개선과 소외계층 고충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해야”

도-전건협 전북도회

대형건설사 합동 방문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도내에서 시행중인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우미건설 본사와 중구에 소재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협회는 완주 삼봉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B-1BL)를 담당하고 있는 우미건설과 공동주택 신축공사(B-2BL)를 담당하고 있는 대우건설 업무 실무자들에게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도내 대형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을 제고를 강력히 건넰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 하도급지원팀 이성석 팀장은 "전북도민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완주 삼봉지구 개발사업에 도내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수익창출과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므로 코로나19로 모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상호협력으로 상생하자"고 말했다.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우미건설 본사와 중구에 소재한 대우건설 본사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올 상반기에도 계통건설을 시작으로, 롯데건설과 고려개발을 방문하여 지역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도내에서 시행중인 새만금 내 건설공사,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전하면서 해당 사업에 지역업체의 하도급율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건넰다.

또한 지난 6월에는 14개 시·군을 방문해 업무담당자들과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지역업체 수주를 및 하도급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인력·자재·장비 등의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경 회장은 "전북도의 하도급지원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내 대형현장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점차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건설업체들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전북도회는 앞으로도 하도급지원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발주처, 유관기관, 대형건설사 본사 및 시군 대형사업장 현장 방문·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업체의 수주를 향상과 하도급 참여 확대에 주력하여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장학문화재단

고창복고서 인문학 강좌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5일 고창복고등학교에서 제41회 '2020 JB인문학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고창복고등학교 1, 2학년 7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러, 게임기획자, 타로마스터, 문화해설가이자 원퍼센트(구 R2D2 visual) 대표와 애프터컬처 대표인 디자이너 김광혁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했다.

김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베라의 명언을 시작으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다 어려움을 겪어 건강까지 잃고 삶을 포기하려했던 순간에 덕질과 글쓰기로 힘든 현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지난 5일 고창복고등학교에서 제41회 '2020 JB인문학강좌'를 개최했다.

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대단한 목표로 시작한 것이 아닌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글쓰기를 통해 초라한 현실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졌고, 자신이 평생 디자이너로 살아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전했다. 오랜 시간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

는 위대한 디자이너들보다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때론 보름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산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데 평생 바쳤다는 것이었다고 말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